

지방 도축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권 원 달
(충북대 교수)

1. 문제의 제기

도축장은 생축이 지육으로 변화되는 장소로서 지육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축장이 일정한 시설을 구비하고 위생적인 도축이 되어서 지육유통의 능률화를 가능하게 하여야만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된다.

도축장은 소비지와 생산지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최근 소비지 도축장이 지니는 장소적 제약때문에 지방 도축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유통에서 지육유통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로 지방육 반입이 대소비지에 이동되면서 지방 도축장의 기능 활성화는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도축장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다수 분산되어 있고 도축두수가 증가되지 못하여 도축장 가동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도축장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것은 도축장이 단지 도축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점차 도축장 자체의 관리 운영이란 측면으로 발전되고, 특히 지방 도축장이 지육 및 육가공 등의 식육센타의 역할도 다양화되면서 지방 도축장의 운영개선은 필연의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도축장이 지닌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2. 도축장의 실태

도축장은 가축을 도살·해체하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일정한 시설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식육을 공급하는데 있다.

도축장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일반·간이·특별지 도축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축장 시설기준은 일반 도축장은 계류사, 생체 검사

실, 작업실, 격리사, 검사실, 오물처리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작업실은 도살실, 내장처리실, 원피처리실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이 도축장 시설은 일반 도축장에 준하되 시설 정도의 간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지 도축장의 시설은 일반 도축장의 시설기준 이외에 냉장(냉각)실과 탈의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표 1. 형태별 도축장 분포상황(1983)

(단위 : 개소, %)

지 역	시 설 기 준 별			계
	특 별	일 반	간 이	
서울	3	-	-	3
부산	2	-	-	2
대구	1	-	-	1
인천	1	-	-	1
경기	4	25	-	29
강원	4	18	-	22
충북	2	11	-	13
충남	14	4	-	18
전북	5	13	-	18
전남	9	21	-	30
경북	3	33	5	41
경남	4	22	-	26
제주	1	-	1	2
계	53 (25.7)	147 (71.4)	6 (2.9)	206 (100.0)

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도매시장부설 도축장임.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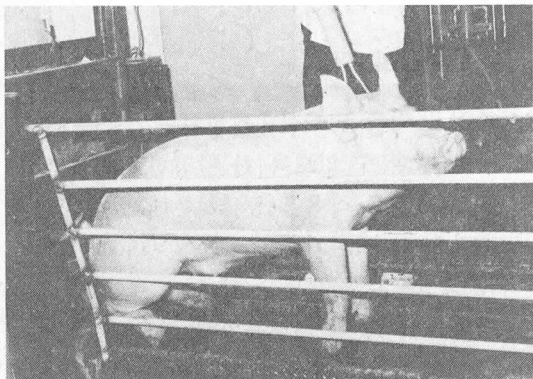


표 2. 운영주체별 도축장 관리현황(1983)

(단위 : 개소)

구 분	관 영	축 협	민 영	계
특 별	3	5	45	53
일 반	104	14	29	147
간 이	6	-	-	6
계	113 (54.9)	19 (9.2)	74 (35.9)	206 (100.0)

주 :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농수산부 축산국

198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축장은 특별지 도축장이 53개소, 일반 도축장이 147개소, 간이 도축장이 6개소로 206개소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6개소, 전남 30개소, 경기 26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있는 도축장은 축산물 도매시장 부설로 되어 있다.

형태별로 변동상황을 보면, 특별지 도축장은 1970년에 8개소이던 것이 6.6배로 증가하였으며 간이 도축장은 1970년의 618개소에 비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을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이 전체의 54.9%인 113개소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74개소, 그리고 축협이 운영하는 곳이 19개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은 예산과 인력 제한으로 대부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도축장 운영이 주로 도축장 사용료에 의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도축

대부분의 지방 도축장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고 도축장 가동율도 낮아 운영에 많은 문제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축장 사용이 편법으로 운영될수 있다.

장 이용율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도축장 사용 징수료는 낮아지고 도축장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경우 도축장 사용이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별지 도축장은 박피기, 폐수 처리 시설 등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서울·부산등의 대도시에 지육반출이 허용된 이후 크게 증가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도매시장과 병설되어 있어 경매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도축장 운영실태

도축장 운영은 주로 도축장 사용료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개설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도축두수를 증가시켜야 도축장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각종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게 된다. 따라서 도축두수가 적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경영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982년말 현재 전국 도축장 시설규모를 보면 평균적으로 대지가 761.1평, 건물 162.1평, 사무실 12.0평, 작업장 79.3평, 생축계류장 34.8평,

오물처리장 27.7평, 화장실 4.3평, 그리고 식육 운반차량이 2.2대였다. 지역별로는 충남·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

도축장의 인력 현황을 보면, 도축장 상근인원은 평균 관리직 1.9인, 사무직 2.5인, 기능직 11.5인, 청소원 1.3인으로 17명이며 임시 고용원은 8.1인으로 되어 있다.

검사도축분만을 중심으로 연도별 소·돼지 도축두수를 보면, 소는 1970년대의 233천두에서 1980년의 531천두를 피크로 1882년에는 302천두로 감소되었다.

돼지의 경우 1970년에 617천두이던 것이 계속 증가되어 1982년에는 2,456천두로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도축두수를 보면 소는 서울이 전체의 24.6%, 경기 13.1%, 경남 10.7%, 경북 10.1% 순으로 되어 있다. 돼지의 경우 역시 서울이 전체의 27.6%, 경기 15.6%, 경남 10.5%의 순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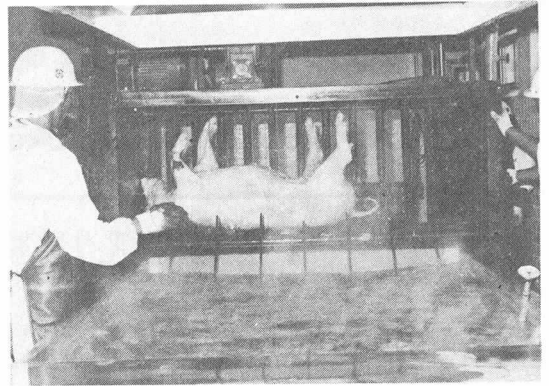
도축장 경영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

표 3. 도축장 시설규모(1982)

(단위: 평)

구 분	대 지	건 물	사 무 실	작 업 장	생 축 계 류 장	오 물 처 리 장	화 장 실	식 육 운 반 차 량 (대)
경 기	733.5	166.9	11.0	70.5	37.0	37.1	4.9	3.0
강 원	739.0	183.3	15.9	51.0	48.5	50.0	4.2	3.4
충 남·북	1,041.5	229.0	11.5	135.0	65.0	37.5	5.5	2.0
전 남·북	736.0	137.1	8.8	100.0	34.2	21.0	2.7	1.3
경 남·북	753.9	153.7	12.3	76.1	21.3	12.8	4.7	1.4
평 균	761.7	162.1	12.0	79.3	34.8	27.7	4.3	2.2

자료: 축산물 유통체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으나 축협 경영 도축장 1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축두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도축세 징수액은 여전히 높지 않았다. 이들 축협 경영 도축장의 1일 도축능력은 평균적으로 소 23두, 돼지 97두였으나 최고와 최저의 차는 심하여 소의 경우 최고 50두에서 최저 3두에 이르고 있다.

도축두수를 보면 1983년에 조합평균 도축두수는 소 1,528두, 돼지 13,197두인데 최고와 최저의 차는 너무 심하여, 최고의 경우 포항 도축장은 소 4,572두를 도축한데 비해 최저의 사천 도축장은 소 116두와 돼지 2,100두를 도축하였다.

도축세 징수액도 1983년 평균 조합당 징수액은 52,279천원인데 비해 최고는 125,578천원이었고 최저는 6,155천원이었다.

특히 1983년말 이후 1984년 9월까지 평균5,375

표 4. 유형별 도축장 가동율(1982) (단위: 두)

구분	1일평균도축능력 ²⁾		1일평균도축실적		가동율 (%)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특별	111.6	527.4	17.6	232.2	15.8	44.0
일반	16.8	66.3	2.5	23.4	14.8	35.3
간이	15.5	42.3	1.7	12.1	11.0	28.6

주: 1]본연구 현지조사 결과
2] 1일 도축능력은 8시간 기준임.
자료: 전 개서

표 5. 지역별 도축장 가동율¹⁾(1982) (단위: 두)

지역	1일평균도축능력 ²⁾		1일평균도축실적		가동율 (%)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경기	29.8	136.4	3.5	49.5	11.8	36.3
강원	22.9	96.9	2.1	33.8	9.6	34.9
충남	47.9	251.4	5.1	62.3	10.7	24.8
전북	51.5	122.5	3.8	39.2	7.4	32.0
전남	33.0	256.7	4.3	62.8	13.0	24.5
경북	20.5	57.3	2.9	19.3	14.2	33.7
경남	17.0	96.4	4.9	32.9	28.8	34.1

주: 1]본연구 현지조사 결과
2] 1일 도축능력은 8시간 기준임.
자료: 축산물 유통체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천원인데 비해 최고는 30,000천원을 투자했으나, 전혀 투자하지 않은 조합도 6개 조합이나 되었다.

도축장을 단골로 이용하는 정육점과 상인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인데 비해, 적게 이용하는 곳은 25개 정육점밖에 없는 영세한 규모였다.

특히 도축장 가동율은 저조하여 시설개선의 여지가 없다. 1982년 현재 유형별 도축장 가동율을 보면 소의 경우 1일 평균 도축능력은 111두인데 비해, 도축두수는 17.6두로 15.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 도축장은 14.9%, 간이 도축장은 110%에 불과하며 돼지의 경우도 특별지 도축장이 44.0%, 일반 35.3%, 간이 28.6%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가동율을 보면 소는 경남이 22.8%, 경북 14.2%, 전남 13.0% 순으로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 경기 36.3%, 강원 34.9%, 경남 34.1% 순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도축장수가 과다하고 시설투자가 비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축장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단위당 도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도축장에서 징수하는 비용은 도축장 사용료, 도축세, 검사 수수료가 있다. 생우 400kg을 기준하면 도축세 15,000원, 검사 수수료 4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도축장 사용료는 개설자에 따라 다르다. 사설 도매시장은 판매대금에 1.5%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축협 공판장은 판매대금의 1%, 지방 일반 도축장은 10,000원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도 비슷하며 생돈 90kg 기준시의 도축비용을 보면 도축세 1,700원, 검사 수수료 80원을 징수하며, 도축장 사용료는 사설 도매시장에서는 판매대금에 2%의 부가세를 부가하며 축협공판장은 판매대금의 1%, 지방 일반 도축장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도축장에서 징수하는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도축두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도축장 수지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없는 한 도축장 경영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4. 도축장 운영의 문제점

도축장이 지니는 문제점은 구조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도축장 개설형태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첫째, 도축장 개설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다.

도축장 운영의 문제점은

1. 도축장개설이 행정구역 중심이고
2. 도축장 가동율이 낮으며
3. 시설미비, 기술개선이 미흡하며
4. 부산물처리가 과학화 되어있지 못하다.

현재 도축장이 점차 통폐합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고 특히 경제권역별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개설되어 있다.

둘째, 도축장 가동율이 낮다.

가동율이 낮은 것은 도축두수에 비해서 도축장수가 많은 것이 주요인이고, 그 다음은 도축장 분포가 경제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장 가동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

세째, 도축장의 운영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도축장의 소유형태가 지방행정기관, 축협, 민간인 등 3원체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운영형태도 다르고 도축비용 징수형태도 다르다. 따라서 도축장 운영이 효율적이 못되고 있다. 특히 시·군이 소유하는 도축장은 민간인에 의해 위탁경영되기 때문에 건전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네째, 도축장 시설이 미비하다.

현재 특별지 도축장은 시설이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일반 도축장 시설은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군 소유 관영 도축장은 개설자가 운영주체가 아니라 위탁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위생적이며 부정도축마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도축기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축장은 관행기술에 의해서 도축되기 때문에 정육율에 차이가 많다. 특별히 도축장도 지역과 계절에 따라 정육율에 차이가 커서 출하자의 반축을 사고 있다. 가축 출하량이 많아 계류장이 제약되는 경우 도축방법에 따라 정육율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부산물 처리 문제가 과학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일반 도축장은 물론 부산물 처리가 위생적이 못되고 있으며, 특별히 도축장도 부산물 처리가 공개적으로 경매되지 못하기 때문에 출하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물과 정육율은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다.

5. 도축장 운영개선 방향

도축장은 생축을 해체하여 지육화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완벽하고 경영관리란 측면에서는 수지가 맞아야 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축장 운영개선은 단계적이고 다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도축장을 정비·통합하여 규모화하여야 한다.

어쨌든 도축장수는 줄여서 축산물 유통이 권역화될 수 있게 경제권 중심으로 권역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축장의 정비형태는 근본적으로 피소비지의 지육유통체계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에서 도축하여 소비지 지육을 공급하는 식육센터역할로 전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도축장의 유형도 지역에 집하율이 높고 지방정육 수요를 충족하는 지방형과, 지방 집하율이 높고 출하량도 증가되며 소비지 지육을 공급할 수 있는 형으로 구분하되, 후자는 주로 소비지에 공급되는 지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도축장으로 점차 규모화하여 식육공급기지 역할을 하게 한다. 전자는 지역 지육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게 몇개 군단위를 권역화하여 규모화해야 한다.

“축협은 도축장수를 늘리고 시설을 근대화하여 공영 도축장으로서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위탁경영은 단계적으로 정비”

둘째, 도축장 가동율을 높여야 한다.

이는 도축장의 정비에 따라 가동율이 높아지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축장 시설을 개선하여 경영개선을 통해 도축두수도 증가하고 지출을 합리화하여 도축장 수지를 개선하게 한다. 특히 도축장 가동율이 지역적으로나 운영주체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여 평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세째, 도축장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축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수를 늘리고 시설을 근대화하여 공영 도축장으로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게 한다. 도축장의 권역화 사업은 축협이 주관하여 시설개선과 경영개선이 병행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관영 도축장의 위탁경영은 단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네째, 도축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축두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밀도살행위는 도축장 사용료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정부투자에 의한 시설개선으로 밀도살을 흡수하여 적극적으로 도축장 경영 개선을 기해야 한다. *